

사설시조의 '산것들'과 그들에 대한 작가인식*

이 정 옥**

〈국문초록〉

전통시대의 문학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당대 지식인인 양반들과 사대부의 시조인 평시조에 나타난 자연관 정도로 생각하였던 탓에 사설시조나 서민작가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사설시조 속의 '산것들'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들은 시어로서는 부적절한, 이른바, '생경한 시어', 또는 '비시적 사물의 시화'라는 홀대를 받았다. 그 어떤 평자들도 그 살아 숨쉬는 것들을 '산것들'로 인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작품속의 주체적 대상으로도 인식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설시조에서는 경험적, 구체적, 일상적 동물들의 등장이 관심을 끈다. 이는 사실 양반들의 관념적 생물관과 비교될 만한 단서도 된다.

본고는 사설시조 속의 이들 '산것들'과 그들에 대한 작가의 시각과 인식에 대해 소박한 논의를 하였다. 본고에서 '산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의미한다.

먼저 사설시조 속의 '산것들'은 일상과 경험의 생물들이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사설시조의 작가에게는 지식이나 관념적 생물이 아니었다. 생물환경적으로 도저히 공생할 수 없는 '산것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그 반대로 오랫동안 친숙한 일상경험에 근거하여 '산것들'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탁월한 작품도 있었다.

* 본고는 제36차 한국시조학회 전국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동 발표대회의 주제는 "생태주의 문학으로서의 시조"였다. 지정 토론자인 전채강 교수(동양대)의 질정에 크게 감사한다.

** 위덕대

또한 '산것들'에 대한 사설시조 작가들의 친근하고도 애뜻한, 그리고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명체에 대한 온기 있는 시선은 때로는 동일시의 대상으로 또 때로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더러는 애증이 혼재하는 복합적 시선도 눈에 띈다. 사설시조 작가들의 삶은 온갖 '산것들'과 함께 하는 공생의 삶에 다름 아니다.

핵심어 : 사설시조, '산것들', 생물, 일상과 경험의 산물, 동물, 동일시, 감정전이

1. 서론

“사설시조는 사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극도로 집약된 표현을 흘려버리는 엉뚱한 짓을 해서 주목되며, 작품 수가 만만치 않”¹⁾은 시조장르라거나 또는 “사설시조는 그 동안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온 세계상을 버리고 자아에 누적된 관념도 씻어내기 위해서, 서정시와는 맞지 않을 듯해서 버려두었지만 사실은 생활을 통해서 나날이 부딪치는 갖가지 사물을 가져와서 의식의 청소를 가능하게 하는 비유의 매체로 삼”아서 표현 효과를 더욱 높이기도 한 시가로 평가되었다. 사설시조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논의는 형식적으로 시조 관습의 파괴, 소재적으로 기발한 착상, 주제적으로 해학과 풍자에 의한 사회비판에만 집중돼 있었다²⁾는 것이 대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조동일(1999),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 김학성은 “사설시조에 풍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서 “약자가 강자를 신랄하게 측면 공격하는 비판정신을 갖춘 작품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학성(2001),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시조학논총』 제17집, 한국시조학회, 62쪽.

본고는 사설시조 속에 등장한 다양한 '산것들'³⁾에 주목한다. 이들 '산것들'은 사설시조에서 만만찮은 사회비판적 주제를 비유하는 생경한 사물로만 인식한 나머지 주제적 기능의 풍자적 기능소로서 '비시적 사물의 시화'라는 폼하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평자들도 그 살아 숨쉬는 것들을 '산것들'로 인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작품속의 주체적 대상으로도 인식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감이 있다.

전통시대의 문학에서 생태주의 및 생태사상을 논의한다면 당대 지식인인 양반들과 사대부의 시조인 평시조에 나타난 자연관을 논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사설시조 내지 서민작가의 자연관 내지는 생태사상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사설시조에서는 경험적, 구체적, 일상친화적 동물들의 등장이 관심을 끈다. 이는 사실 양반들의 관념적 생물관 혹은 동물관과 비교될 만한 단서가 된다.

사설시조에는 평시조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생물종이 등장한다. 시조에 나타나는 생명체에 대해 따로 논의할 필요도 있으며, 사설시조와 평시조에 등장하는 생물들에 대한 비교론적 논의도 매우 가능하리라고 보지만⁴⁾ 본고는 사설시조 속의 이들 '산것들'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태도를 소박하게 논급하고자 한다.⁵⁾

3) '산것들'이란 살아있는 것들을 두루 이르는 개념어일 것이나 본고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것들', 즉 식물을 제외한 동물류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용어 사용에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차후 적당한 용어를 찾아 쓰거나 힘이 닿으면 식물류까지로 논의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4) 평시조와의 비교적 논의는 훗날의 과제로 미룬다.

5) 발표 당시 전재강 교수는 토론문에서 “요즈음 많이 거론되는 생태주의 문학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그 문학기론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본고의 논의는 일단 사설시조 속의 '산것들'을 그 어떤 다른 사물이나 인식의 비유적 매개체가 아닌, 사설시조 작가들의 시선과 인식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 함을 밝혀둔다.

2. ‘산것들’ : 일상과 경험의 생물

앞서도 말했다시피 사설시조에는 여느 다른 장르의 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물종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시조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그것들은 사설시조의 미적 구조라고 일반화된 논의, 즉 열거법적 수사에 힘입어 그 다양성은 극대화되거나 확장되었다. 이들 ‘산것들’에는 ‘늘즈심’과 ‘길버러지’⁶⁾와 ‘고기’⁷⁾, ‘물것’⁸⁾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산것들’은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 간에 인간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종의 분류도 가능하였다.

(1) 기고리 痢疾 腹疾하여 죽은 날 밤의

금두텁 花郎이 존노고 시남 갈 제 靑빛독 계더는 杖鼓 덩더럭쿵 치는디
 黑빛독 典樂이 저 힐나리 분다
 어디서 山 진 거북과 돌 진 가지는 拊鼓를 둥둥 치는나⁹⁾

개구리가 설사 잦은 배앓이를 하다 죽은 날 밤 온갖 동물들이 죽은 개구리의 명복을 비는 곳을 하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금두꺼비는 옷 잘 입고 잘 노래하고 춤도 추는 광대와 같은 화랑이 노릇을 하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푸른색 메뚜기는 장구를 치고 검은

6) ‘늘즈심 길버러지’는 다음의 시조에 등장하는 시어다. 이 시조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였다.

花灼灼 범나뉘 雙雙 柳靑靑 외고리 雙雙
 늘즈심 길버러지 다 雙雙하다마는
 엇더타 이 너의 몸은 혼즈 雙이 업는다

7) 예문 (3)에 등장하는 시어다.

8) 예문 (4)의 시조에 등장하는 시어다.

9) 개구리 痢疾 腹疾하여 죽은 날 밤에

금두꺼비는 花郎이갈고 청메뚜기는 杖鼓 덩더럭쿵 치는데 흑메뚜기는 피리를 빼리리 분다
 어디서 산을 진 거북이와과 돌멩이를 진 가재는 拊鼓를 둥둥 치는구나.

메뚜기는 피리를 불고 있다. 산을 등에 지고 있는 형상의 거북이와 돌을 등에 진 형상의 가재는 바가지 얹어놓고 축원하듯 부고를 두드리고 있다.

개구리, 두꺼비, 푸른 메뚜기, 검은 메뚜기, 거북, 가재 등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양서류로서 산이나 들에서 물을 가까이 사는 동물이며, 메뚜기는 들과 산에 사는 곤충류이며, 가재는 물속에 사는 동물이니 실제로 이들 '산것들'이 서로 환경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단지 그 생긴 모양새나 지닌 색깔에서 연상되는 악기를 연주하는 동물로서 등장하였으며, 그러나 작가에게는 그런 동물학적 분류가 의미 없이 다만 지극히 일상적으로 친근한 동물인 것이다.

(2) 갓나희들이 여러 층이오레.

松鶴미 갖고 줄에 안즌 저비도 갖고 百花園裡에 두루미도 갖고 綠水波瀾에 비오리도 갖고 짜히 띄 안즌 쇼로기도 갖고 석은 등걸에 부형이도 갖데.

그려도 다 각각 남의 스랑인이 뽕—色인가 하노라.¹⁰⁾

여성들을 여러 종류의 새에 직유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시조이다. 송골매, 제비, 두루미, 비오리, 소리개, 부엉이 등 온갖 종류의 새가 등장한다. 초장에서는 여인들이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중장에서는 여인들을 여러 종류의 새에 비유한 뒤, 종장에서는 그 다양한 여인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입에게는 각각 가장 사랑 받는 여인들이니 모두 일색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10) 여인들이 여러 층이더라.

송골매 같기도 하고, 줄에 얹은 제비 같기도 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뜰에 두루미 같기도 하고, 푸른 물결 위에 비오리같기도 하고, 땅에 띄 주저앉은 술개 같기도 하고, 석은 등걸에 얹은 부엉이 같기도 하네.

그래도 다 각각 남의 사랑을 받으니 각자가 다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그런데 여성이 갖가지 새로 비유되고 있으면서 각기 특징적 행위와 생활공간을 집약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한다. 즉 제비는 줄 위에 앉아 있고, 두루미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 비오리는 푸른 물결 치는 물 위에, 솔개는 땅에 주저앉은 모습으로, 부엉이는 썩은 나무등걸에 앉아 있다. 제각각의 새들이 있어야 할 생태공간에 대해서 생활생태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나 애정 어린 관심과 그들과의 오랜 세월의 교류에서 자연스럽게 친숙해진 일상경험이 없으면 이러한 구체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묘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3) 바둑바둑 뒤엎어진 놈아 제발 비자 내게 너가의란 서지 마라
 눈 큰 준치 허리 긴 갈치 두루치 메오기 촌촌 가물치 부리 긴 콩치 넓적
 혼 가잠이 등 굽은 쇠오 결네 만흔 곤쟁이 그물만 너겨 풀풀 뛰여 다 다
 라나는되 열업시 삼긴 오징어 둥기는고나
 眞實노 너곳 와 서시랑이면 고기 못 잡아 大事이러라¹¹⁾

마치 고기들이 그물인가 오해하여 모두 달아날 것이 염려된다고 하면서 얼굴이 몹시 엷은 사람에게 냇가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여기서 열거된 어류는 준치, 갈치, 메기, 가물치, 콩치, 가자미, 새우, 곤쟁이, 오징어 등이다. 그러나 여기 열거된 어류는 냇가에만 사는 민물고기만이 아니다. 오히려 메기와 가물치를 제외한 준치, 갈치, 콩치, 가자미, 새우, 오징어는 바다에 사는 어류이다. 생물의 다양성은 그들에게 지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밥상 위의 음식으로 오르는 고기로 인식되어 있다. 즉 경험적 인식의 산물인 셈이다. 이 시조

11) 바둑바둑 뒤엎어진 놈아 제발 네게 빌자 냇가에는 가 서지 마라
 눈 큰 준치, 허리 긴 갈치, 두루치는 메기 칭칭 휘감는 가물치 부리 긴 콩치 넓
 적한 가자미 등굽은 새우 걸레만한(?) 곤쟁이 그물인 줄 알고 풀풀 뛰여 다 달
 아나는데 열없이 생긴 오징어만 겁 먹는구나.
 眞實로 네가 와 서 있으면 고기 못 잡아 큰일이러라.

또한 각각의 고기들의 특징적 형상에 착안한 묘사가 예사롭지 않다. 준치는 눈이 크고 길이가 긴 갈치는 허리가 길다고 하고 있다. 길이가 길고 가는 쫄치는 마치 새의 부리와 같이 길다고 하며 가자미는 넓적하고 새우는 등이 굽은데 오징어는 열없이 생긴 게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인 고기들은 더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하면서 생동감 있으면서도 온기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4) 一身(일신)이 사자 한이 물썬 계워 못 견딜쇠.

皮(피)스겨 갖튼 갈랑니 보리알 갖튼 슈통니 줄인니 갖 썬니 존 벼룩 굴근 벼룩 강벼룩 倭(왜)벼룩 기는 놈 뛰는 놈에 琵琶(비파) 갖튼 빈대 사기 使令(사령) 갖튼 등에아비 값다귀 삼의약이 센 박희 놀은 박희 바금이 거절이 불이 쏘족한 목의 달리 기다한 목의 야원 목의 술진 목의 글임에 쏘룩이 晝夜(주야)로 빈 셔 업시 물건이 쏘건이 썰건이 뜻건이 썬(심)한 唐(당)빌리 예셔 얼어왜라.

그 中(중)에 참아 못 견딜손 六月(유월) 伏(복)더위에 쉬프린가 하노라.¹²⁾

사람을 괴롭히는 '물것'이 많아서 살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노래이다.

이 작품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해충들을 나열하고 그 중 가장 지긋지긋한 쉬파리를 지적했다고 보는 해석과 '물썬'에 해당되는 여러 해충들을 나열하여 그것을 통해 민중들을 수탈하던 중간층

12) 이내 몸이 살아가고자 하니 무는 것이 많아 견디지 못하겠구나.

피의 껍질 같은 작은 이, 보리알 같이 크고 살찐 이, 굶주린 이, 막 앞에서 깨어난 이, 작은 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어다니는 놈, 뛰는 놈에 비파 같이 넓적한 빈대 새끼, 사령(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같은 등에, 각다귀(모기의 일종), 사마귀(벼마재비), 하얀 바퀴벌레, 누런 바퀴벌레, 바구미, 고자리, 부리가 뾰족한 모기, 다리가 기다란 모기, 야원 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절족 동물), 뾰룩이, 밤낮으로 쉴새없이 물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심한 당비루(피부병의 일종) 여기서 어렵도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오뉴월 복더위에 쉬파리인가 하노라.

이나 지배층을 풍자했다고 보는 해석, 그리고 또 하나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모리배, 아첨꾼, 소인배들을 풍자하고 배척했다는 해석 등으로 논의되었다.¹³⁾ 사설시조 중 단일 작품으로는 비교적 다양하게 논의된 몇 안되는 작품 중의 하나다.

여기에서 ‘물것’은 단순히 ‘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물어 피를 빨아먹는 벌레의 총칭’으로 보기보다는 백성을 착취하는 온갖 부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는 해석으로만 천착되고 있다. 앞선 많은 논의들이 모두 이 노래의 표현적 특징으로 중장의 열거를 통한 다양한 ‘물썩’들의 예시를 든다. 사람을 괴롭히는 ‘물썩’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열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숨가쁘게 엮어 나가는 익살스런 말투도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 벼룩, 빈대, 등에, 각다귀, 사마귀, 바퀴벌레, 바구미, 고자리, 모기, 그리마, 쉬파리 등 무려 11종의 벌레가 등장한다.¹⁴⁾ 그 중에서 또 이에는 4종, 벼룩이 4종, 색깔이 다른 바퀴벌레 2종, 모기 4종 등 같은 종 안에 다시 분류된 종류, 이를테면 강벼룩과 왜벼룩이 열거되기도 하고, 크기와 형태와 행동 특성에 따라 더욱 다양한 ‘물것’들이 등장, 총 25개 종이 등장한다. 단순히 벌레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형태와 모양과 특징과 행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벌레들을 총동원시킨 셈이다.

먼저 이를 보자. 피껍질같이 작은 이가 있는가 하면 많이 먹고 배부른 이가 있다. 그와 반대로 굶주려 배고픈 이가 있기도 하고 막 알에서 깬 이도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내면화되어 있는 묘사라고

13) 이강욱, “사설시조 〈일신이 사자하니〉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4) 일본의 전통시가인 하이쿠에도 이, 거미, 모기, 빈대, 파리, 귀뚜라미 등의 벌레가 등장하는 시가 많다.

김옥동(2003),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85쪽-106쪽 참조.

할 수 있다. 인간 중에는 배부르고 살찐 사람도 있겠으나 피갈이 마르고 못 먹어 굶주린 사람이 있으며 갓난아이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모습과도 흡사한 이들의 다양한 종류를 보면 단지 사람 못 견디게 하는 해충으로만 보지 않는 측은의 시선이 있다.

벼룩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먹지 못해 자라지 않아 '준벼룩'도 있으나 먹을 만큼 먹어 '굴근벼룩'도 있고 힘이 없어 '기는 놈'도 있으나 잘 먹어 힘이 남아 '뛰는 놈'도 있으니 우리네 인간살이와 다를 바가 없이 가지각색이다. 모기의 종류도 많다. 볼이 뽀족한 모기, 다리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진 모기 등 네 부류다. 앞의 두 부류는 특징적 형태를 묘사한 것이겠으나 야윈 모기와 살진 모기는 같은 모기 중에서도 잘 먹어 살찐 모기와 그렇지 못해 야윈 모기 두 가지로 보인다. 이 역시 가난하고 배고픈 인간의 눈으로 본 모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조에 언급된 온갖 종류의 물것들은 모두 내 일신을 괴롭히는 '물썩'이기도 하겠으나 그 중에도 잘 먹고 못 먹는 놈 있고, 힘있고 힘없는 것이 있으니 어쩌면 그들의 세계가 우리 인간사 고달픔과도 다르지 않다는 시선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로 인해 몸은 한없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다만 견디기 힘들음을 하소연할 따름이지 차마 죽이지는 않는 동병상련의 태도를 보인다.

(5) 벼름도 쉬어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기.

山眞이 水眞이 海東靑 보라미도 다 쉬어 넘는 高峯 長城嶺 고기,
그 너머 넘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¹⁵⁾

15)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산에서 자라 여러 해 묵은 매), 수지니(손에서 길들인 매), 송골매, 보라매 같은 매들도 도중에 쉬어야 넘을 만큼 높은 장성령 고개,
그 높은 고개 너머에 임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가리라.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진술하기는 하나 다소 과장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평시조에 비해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느낌을 주는 이 노래는 바람이나 구름, 매들까지도 쉬어야만 넘을 수 있는 높은 고개를 임을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 가겠다는 내용의 시조다. 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시조이다.

그런데 이 시조에는 4종의 매가 등장하고 있다. 산에서 자라 여러 해 묵은 매인 산지니, 손에서 길들인 매 수지니, 송골매, 난 지 일년이 채 안된 새끼매인 보라매 등의 매 이름을 쉽게 열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와 친근하게 살고 있는 민중의 일상적 삶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매를 이용하여 꿩을 잡는 이른바 매사냥이라는 전통적 수렵방식이 전래되었다고 한다.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매사냥은 대체로 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나, 민간에도 확산되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전국에서 행하여졌다고 한다. 이러한 매사냥에서 사냥을 하는 매를 '송골매', 그 해에 난 새끼를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보라매'를 사용하는데, 이때 보라매를 '해동청'이라고도 부르는데 매사냥의 솜씨가 좋아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산에서 야생하는 생매를 '산진이', 어린 새끼를 잡아다 길들인 매를 '수진이'라고 한다.

(6) 왕거미 덕거미드라 진지 東山 진거미 낙거미드라

줄을 느르느니 摩天嶺 摩雲嶺 孔德山 나린 뫼로 명덕 海龍山 陳川 바다
너머 가서 三水 甲山 草溪 東山으로 내내 진 줄 느러 주렴
평생에 그리든 님의 消息 네 줄노 連信히리라

이 시조 역시 왕거미, 덕거미, 진거미, 납거미 등 4가지의 거미 이름

이 예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미는 109종이나 될 정도로 그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 주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 서민들에게 더없이 친숙한 동물이다. 우리나라 민속으로는 거미가 집안에 나타나는 시점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속설도 있는데, 아침 거미는 길조, 저녁 거미는 흉조로 보아 “아침 거미는 기쁨, 저녁 거미는 도둑”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산입에 거미줄 치랴’와 같이 거미가 등장하는 속담이 매우 많은 것도 그 방증이다.

거미는 뱃속의 액체를 토해내어 그물을 짜서 집을 마련하는데 고대인은 거미집을 보고 그물을 고안했다고 전한다. 동양사상에서 거미는 운명의 실을 짜는 자로 우주거미의 거미줄은 천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거미가 친 가늘고 긴 줄로 크고 작은 곤충들을 잡아 먹는 것을 눈여겨 봐온 작가의 눈에는 그 거미줄이 멀리 떨어져 보고픈 임과의 교신을 이어줄 선으로 충분히 여겨질 만하다.

3. ‘산것들’에 대한 인식

(7)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수야, 네 황화 괴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 兩目이 上天, 前行後行, 小아리 八足 大아리 二足, 淸醬 으스
 슥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수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¹⁶⁾

위 시조에는 시정의 장사꾼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상거래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서민들의 생활 용어

16)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젓(게젓)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밝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기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스하는 동난젓 사오.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젓이라 하려무나.

가 그대로 시어로 쓰이고 있어 서민적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있는 이 노래는 게 장수와 의 대화를 통한 상거래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게’를 묘사한 중장을 주목하자.¹⁷⁾ 밖은 딱딱하고 속에 물렁한 먹을 것이 있다. 두 눈은 하늘을 향해 붙어있으며 작은 발 8개, 큰 집게발이 두 개 있는 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앞뒤로 기는 게의 동작적 특징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게로 담근 게장을 씹을 때 나는 소리 ‘아스슥’과 같은 감각적 표현은 한결 현실감을 더해 준다.

묘사는 관념적 인식이 아니다. 사실적 현상을 자세히 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린다. 종류도 보이고 차이, 크기, 특징, 형태와 행위와 동작이 보인다. 오랜 세월 가까이서 애정을 가지고 그것들과 공생하지 않으면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있을 수가 없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감정적인 결합의 결과 타인과 자기를 같은 것으로 굳게 생각하는 것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말이 있다. 즉 둘 이상의 사물을 구별하지 않고 보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반응 경향을 받아들이는 경우나 타인을 자기의 대신이라고 보는 경우, 또는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로서, 이를테면 타인의 목적이나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마치 자기의 가치나 목적인 것처럼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관념을 실제 대상과는 전혀 다른 대치물(代置物)에 방출하는 현상을 이르는 개념의 감정전이(transference)란 용어도 있다. 이것은 보통 정서적 감정이 직접 표현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실제적인 근원을 떠나서 좀더 용납될 수 있는 다른 것에 방출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성질상 대치되는 새로운

17) 물론 이 시조의 주된 대상물은 게가 아닌 게로 담근 것, 즉 게장이다.

대상은 그 사람 자신이 고통스러운 갈등에 맞부딪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

아래의 예 (8)부터 (10)까지의 시조에 등장하는 '산것들'은 하나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그 아픔도 보이는 법이다. 사설시조의 '산것들'에는 온전하지 않은 산것들이 많이 등장한다.

(8) 개야미 불개야미 존등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정종(疔腫) 나고 뒷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廣陵(광릉) 십재 너
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7르 물어 추켜 들고 北海(북해)를 건너닷 말이
이서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¹⁸⁾

남을 모함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교훈적 내용을 개미를 제재로 하여 戲畫(희화)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태까지의 이 시조의 논의는 노래의 구심점을 종장에 맞추었다.¹⁹⁾ '온 놈이 온 말'은 다른 사람의 참언을 뜻하는 것으로, 종장에서 사물을 극단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일어나는 허무맹랑함을 통하여 '온 놈이 온 말'을 한다 해도 거짓일 수밖에 없음을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초장에서의 '개야미'는 무능하고 보잘 것없는 존재를 비유한 것이며, 종장의 '님'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님'을 임금으로 가정할 수도 있으며, 종장의 문구는 사설시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볼 수 있다. 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 대개 그 말을 믿게

18) 개미, 불개미, 허리가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피부병이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미가, 광릉 샘고개 넘어 들어가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물어 추켜 들고, 북해를 건너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이여, 모든 사람이 백 가지 말을 한다 해도 님께서 짐작해 주소서.

19) 임주탁, “慣習과 意味-長時調 〈개야미 불개야미...〉에 대하여”,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되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위험성을 풍자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시조라는 논의로 귀결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미에 주목하자. 잔등이 부러지고 앞발에는 피부병이 나고 뒷발에는 종기까지 난 개미다. 만신창이의 몸인 셈이다. 이 정도의 몸이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개미가 깊은 산의 호랑이를 물고 넓은 바다를 건널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장하기 위하여 동원된 개미의 장애는 바로 서술자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도 같으니 눈물겹다.

(9) 혼 눈 멀고 혼 다리 절고 痔疾 三年 腹疾 三年 邊頭痛 內外丹骨 알는 조
고만 숫기지고리가
一白 쉰 디자 장남게를 올은 제 괴 수이 너겨 수로록 소로록 허위허위
소습 쬐여 올라 안자 느릴 제란 어니 홀고 내 몰라라 저 기고리
우리도 시 님 거러 두고 나중 몰나 호노라

한 쪽 눈이 멀고 한 다리마저 저는 조그마한 개구리, 게다가 삼년 치질에 삼년 배앓이까지 하면서 편두통에 피부병까지 앓는 개구리가 등장한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증증의 환자요 장애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분수도 모르고 높으나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갔다가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졌다고 한다.

(10)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마즈 파리 물고 두엄 우회 치다라
안자,
건년산 바라보니 白松骨(백송골)리 썬 잇거늘 가슴에 금죽하여 풀떡 띄
다가 그 아리 도로 잣바지거고나.
못처로 늘닌 켈식만정 형여 鈍者(둔자) | 런들 어혈질 변하괘라.²⁰⁾

20)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꺼비, 서리 맞은 파리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년 산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다가 그 아래 도로 자빠지겠구나.
다행히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형여 둔한 놈이런들 피멍들 뻔했도다.

두꺼비, 파리, 백송골 등을 의인화하여 약육강식하는 인간 사회를 풍자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시조다. '두꺼비'는 '양반 계층'을, '파리'는 '힘없고 나약한 평민 계층'을, 그리고 '백송골'은 '외세'를 상징하면서 따라서 특권층인 두꺼비가 힘없는 민중들을 괴롭히다가 강한 외세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태를 풍자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모습의 두꺼비가 무력한 파리를 괴롭히는데 대한 반감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것이 이 노래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두꺼비를 바라볼 수도 있다. 두꺼비의 몸골은 어떤가.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절름발이 신세의 나약한 동물이다. 이는 연민지정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비록 힘을 가진 강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한때 약자를 괴롭힌 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로 측근히 여기는 시선과 감정이 스며있다. 그러니 제 원래의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빠지는 것이 아닌가.

(11) 귀뜨리 저 귀뜨리 어엿부다 저 귀뜨리,

어인 귀뜨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 여원 줌을 슬뜨리도 씨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이나 無人洞房에 내 뜻 알 리는 너써인가 하노라.²¹⁾

이 사설시조의 귀뚜라미는 微物인 동시에 또한 작중자아이다. 즉 님을 여원 작중자아는 다만 미물인 셈이다. 긴소리, 짧은 소리로 절절이 슬프게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 또한 자신의 노래이다. 깊은 밤 독수공

21)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 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어, 비단 창문 안에 살풋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가 비록 작은 벌레지만, 외로워 잠 못 이루는 내 마음을 알 이는 너(귀뚜라미)뿐인가 하노라.

방하며 짙은 외로움을 느끼는 작중자아의 심정을 애절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여윈 즘을 슬쁘리도 씨오논고야.'라는 감정 이입에 의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입을 향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고 전전반측하는 작중자아의 심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평시조의 정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귀뚜라미의 소리를 형용하는 표현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조금씩 달라지도록 해서 막힌 공간을 넘어서는 청각적 심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평시조의 제약을 떨쳐버렸기에 전통적 울격을 적절하게 변형시킨 자유시로의 가능성을 열었다²²⁾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짧은 소리 긴 소리로 마디마디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고도의 청각적 능력 또한 귀뚜라미 소리를 친근히 들을 수 있는 작중자아와 귀뚜라미와의 교감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12)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긔치 알미오라.

미운 님 오며는 꼬리를 뒹뒹 치며 치썩락 느리 썩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²³⁾

사랑하는 입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노래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미운 님은 반겨 맞고 고운 님은 짖어서 쫓아 버린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대신 죄 없는 개에게로 감정전이하여 우회적으로 입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노래 속의 암개의 알미운 행동을

22) 조동일 앞의 책, 328-329쪽.

23) 개를 심 여 마리나 기르되 이 개처럼 알미운 놈이 있겠느냐.

미운 님이 오면 꼬리를 뒹뒹 치며 울러 뛰고 내리뛰며 반겨서 내닫고, 고운 님이 오면 뒷발을 버티고 서서 뒤로 물러났다 앞으로 나아갔다 하며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아무리 밥이 많이 남아서 선밥이 그릇그릇 쌓인다 한들 너에게 먹일 성싶으나.

나무라면서 개의 행동과 반대로 미운 님과 고운 님을 바꾸어놓고 싶은 심정을 암캐에게 전가시킨 것은 정해놓은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표면적 자아를 걷어내고 삶의 역설을 직접 겪는 이면적 자아가 드러날 수 있게 한 것이라는²⁴⁾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 노래에서 님을 내쫓는 개의 동작의 사실적 묘사는 작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여과없이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 (13)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피헤 매게 췌친 가토릭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일천 석) 시큰 비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꺾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기
 뒤섯게 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천리 만리) 나쁜되 四面(사면)
 이 거머어둑 저못 天地寂寞(천지적막) 가치노을 췌는되, 水賊(수적) 만
 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옛그제 님 여훤 내 안희야 엇다가 7을하리오.²⁵⁾

임을 여윈 허전함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아득한 상황을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와 도사공을 끌어다 표현하였다. '안'이라는 말로 마음을 나타내면서, 세 가지 절박하기 그지없는 마음은 비할 데가 없다고²⁶⁾ 하면서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의 암담한 심정과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 자신의 마음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장에서는 모든 상상할 수

24) 조동일, 앞의 책, 331쪽.

25) 나무도 바윗돌도 없어 몸을 숨기기 곤란한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넓고 큰 바다 한가운데 곡식을 일천 석이나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닛도 잃고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방이 검어 어둑어둑 저물고 천지가 적막하며 사나운 파도치는데 해적 만난 사공 우두머리의 마음과,
 옛그제 님을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는가(내 마음이 훨씬 더 참담하다).

26) 조동일, 앞의 책, 329쪽.

있는 극한적 상황을 나열하면서 내용면으로는 점층적 구성으로 절박감을 더해 주고 있다.

- (14) 밤은 김허三更(삼경)에 니르렀고 구진 비는 梧桐(오동)에 훗날닐제 니리 궁굴 저리 궁굴 두로 싱각다가 잠못 니루웨라
洞房(동방)에 蟋蟀聲(실슬성)과 青天(청천)에 쓴기러기 소리 스름의 무궁헌 심회를 짝 지여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아
갓득에 다 썩어스러진 구뵤간장이 이밤 시우기 어려워라.²⁷⁾

임과 이별한 후 떠나간 임을 생각하다 보니 밤은 어느새 깊어 삼경이 되었다. 처량하게 가을비는 내리고 오동나무잎이 떨어져 훗날리는 소리에 나뭇잎이 바람에 뒹굴 듯이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다. 때마침 독수공방을 파고드는 귀뚜라미 소리와 하늘의 기러기 처량한 울음소리에 임 그려 눈물로 지새우는 다 썩은 간장을 쓰리고 아프게 한다고 하고 있다. 꺾은 밤비가 오다가 청천의 기러기가 등장하는 시간과 공간의 불일치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넘 잃은 사람의 심회를 함께 나누어 감정전의 대상인 '산것'으로 귀뚜라미와 기러기가 등장하면 되는 것이다.

- (15) 붉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태를 들고 기川(천)으로 往來(왕래) 하며,
붉가승아 붉가승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붉가승이로다.
아마도 世上(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²⁸⁾

27) 밤은 깊어 한밤중에 이르렀고, 꺾은 비는 오동나무에 훗날닐 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잠 못 이루는구나.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하늘에 뜬 기러기 소리가 사람의 허전한 마음을 짝지어서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가뜩이나 다 썩어 문드러진 내 속마음에 이 밤 지새우기가 어렵구나.

28)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개천을 왕래하면서,
“발가승아 발가승아, 저리 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산다.”고 하며 부르는 것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로 만든-혹은 거미줄과 같은 모양의-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유인하고 있다. 실제로 거미는 거미그물을 쳐서 잠자리를 유인하여 잡아 먹기도 하니 잠자리는 아이들의 노랫말처럼 저리 가면 거미줄에 얽혀 죽을 수도 있으며, 이리 와도 아이들의 그물에 걸려 또 죽을 수도 있다.

어린이가 잠자리를 잡는 단순한 놀이에 풍자성을 덧붙여 서로 속고 속이며 모해하는 세대를 풍자하였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어린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로 와야 산다고 부르듯이, 세상일이 아마도 다 그러하리라는 것을 소박하고 풍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시조는 이처럼 서로 믿을 수 없는 악육강식의 각박한 세대를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그 속에 인생의 오묘한 진리나 생활 철학을 간직하고 있다. 이 노래는 이러한 면을 안으로 간직하면서 '붉가숭이(벌거숭이 아이들)'가 '붉가숭이(고추잠자리)'를 잡는다고 한 동음이의어의 중의적 사용이 발달하고 유쾌하다.

4. 결론 : '산것들'과 공생하는 삶

전통시대의 문학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당대 지식인인 양반들과 사대부의 시조인 평시조에 나타난 자연관 정도로 생각하였던 탓에 사설시조나 서민작가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사설시조 속의 '산것들'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들은 시어로서는 부적절한, 이른바, '생경한 시어', 또는 '비시적 사물의 시화'라는 홀대를 받았다. 그 어떤 평자들도 그 살아 숨쉬는 것들을 '산것들'로 인식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런 것인가 하노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작품속의 주체적 대상으로도 인식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설시조에서는 경험적, 구체적, 일상적 동물들의등장이 관심을 끈다. 이는 사실 양반들의 관념적 생물관과 비교될 만한 단서도 된다.

본고는 사설시조 속의 이들 '산것들'과 그들에 대한 작가의 시각과 인식에 대해 소박한 논의를 하였다. 본고에서 '산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의미한다.

먼저 사설시조 속의 '산것들'은 일상과 경험의 생물들이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사설시조의 작가에게는 지식이나 관념적 생물이 아니었다. 생물환경적으로 도저히 공생할 수 없는 '산것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그 반대로 오랫동안 친숙한 일상경험에 근거하여 '산것들'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탁월한 작품도 있었다.

또한 '산것들'에 대한 사설시조 작가들의 친근하고도 애뜻한, 그리고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명체에 대한 온기 있는 시선은 때로는 동일시의 대상으로 또 때로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더러는 애증이 혼재하는 복합적 시선도 눈에 띈다.

사설시조의 작가는 온갖 '산것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으로 애증을 키워왔다. 사설시조 작가들의 삶과 '산것들'과의 삶은 둘이 아닌 하나였다.

우리 고전시가 중에서 사설시조만큼이나 다양한 생물종이 등장하는 장르를 다시 또 없을 것이나 그들은 단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만 인식되었기에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그것들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낸 시도에 작은 가치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산것들'에 대한 소박한 관심에서 출발한 논의가 자칫 논리적 비약을 감당하지 못한 감도 없지 않다. 미흡한 부분을 짚는 일은 훗날의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 김옥동(2003),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김학성(2001),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시조학논총』 제17집, 한국시조학회.
박희병(1999),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서인석(2000), “관습과 의미-장시조 <개야미 불개야미...>에 대하여-”, 『한국고전시
가작품론 2』, 집문당.
이강옥(2000), “사설시조 <일신이 사지하니>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조동일(1999),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Abstract〉

The living things in *Saseol sijo* and the writer's recognition
of living things

{*Saseol sijo*: A form of sijo with no restriction on the length of the first
two verses}

Lee Jeong-Og

When we discuss the literature of traditional era in view of ecological mode, *Saseol sijo* and its common writers were not objects of interests because they were thought only as having the view of the world or nature the same as the noble class and their normal sijo writings had.

Also the living things in *Saseol sijo* were not paid attention to. They were ignored and degraded because they were unfittable and unnatural poetic diction, or they were nonpoetic results of objects. Any critics could not recognize the breathing things as 'the living ones' or 'the subjective things' in the text. In *Saseol sijo*, the appearance of

experienced, substantial and usual animals attract our interest, which is a clue to compare the noble class' sijo with having the ideal and imaginary living th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writer's view and recognition of 'the living things' in Saseol sijo. In this essay 'the living things' mean living and moving creatures.

First 'the living things' in Saseol sijo were the creatures of daily life and experience. They were not ideal or dreamy creatures any longer to the writers of Saseol sijo. In Saseol sijo it's possible for creatures which ecological symbiosis cannot be made to appear together. On the contrary there are texts which had outstanding recognition of 'the living things' that were accustomed to the human life.

The writers of Saseol sijo understood 'the living things' as creatures familiar to human beings. Their warm and affectionate eyes toward the creatures made 'the living things' the objects of identification and sympathy. There are some works which were complicated with love and hatred toward 'the living things'. In conclusion, the life of Saseol sijo writers were the same as the symbiosis with the living creatures.

Keywords : Saseol sijo, 'The living things', Creatures, Animal, Identification, Emotional transference.